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95 예수사랑 큰잔치 6월 11일(주일)에

연 동원 20,000명, 결신 5,000명, 3,800명 등록을 목표로

교회는 4번째 맞이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오는 6월 11일(주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전도위원회에서 제출한 95 예수사랑 큰잔치 기본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계획에 의거 예수사랑 큰잔치의 준비와 세부계획에 들어갔다.

지난 해까지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했으나 기간이 연말에 가까운 관계로 많은 정리해야 할 일들과 겹쳐지게 되고 또한 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준비 기간 중에 여름휴가와 추석 등이 들어있어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금년에는 6월로 정했다.

지난 92년 10월에 제1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연 이후 매년 실시되어 온 이 잔치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전도운동을 펼친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진행해왔다. 또 이런 전도운동을 통해 교구가 활

성화되고 그 일이 교회부흥과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전교인이 전도에 집중함으로써 전 교인의 전도사명감 고취와 영적성장을 기하는 일도 목표중 하나로 정하고 행하게 된다.

금년도 목표는 연동원 20,000명(기존 출석 10,000명에 한명씩 인도하여), 결신자 5,000명, 등록자 3,800명 이중에 2,000명을 양육대상자로 삼아 예수사랑 큰잔치가 끝나는 6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간 양육을 하게 된다.

또한 잔치 전 주간에 3일간(6월 7일~9일) 부흥회를 열어 잔치에 참여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케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중 금요일에는 찬양집회를 실시하여 찬양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며 전체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번 초청은 불신가족과 친척, 이웃을 전도하여 새례교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한다. 따라서 타 교

인을 당일만 참석케하여 숫자 채우기식의 초청도 금하며 교구별 과열 경쟁으로 무조건 데리고 보자는 식의 초청도 금한다.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꾸준히 추적하여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도록 했다.

이 일을 위해 각 분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교구가 교구지역내에서 각 교구 실정에 맞는 전도활동을 이제부터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일과 각 교회

학교가 이에 발맞추어 전도활동을 해나가는 일이 남아있다. 또한 새가족위원회에서는 새신자가 들어올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다.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교구, 교회학교, 각 전도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준비위원회 조직은 별표와 같다.

부목사 세 분 청빙

김의환 목사 협동목사로

교회는 부목사 세 분을 새로 청빙하기로 했다. 새로 청빙되는 부목사들은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교회 앞에 소개하고 곧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게 된다. 또한 총회신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김의환 목사를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박경환 목사는 제12교구 지도로 최영찬 목사는 교육연구소 부지도로, 김동석 목사는 청년1부 부지도로 일하게 됐다. 또한 김의환 협동목사는 청년1부 지도로 결정 됐다.

새로 온 교역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다.

- 박경환 목사(만 36세)
 - 총신대, 총신대학원 졸업
 - 수영로교회 부목사
- 최영찬 목사(만 34세)
 - 총신대, 총신대학원 졸업
 - 할렐루야 서원 사목
- 김동석 목사(만 33세)
 - 총신대, 총신대학원 졸업
 - 부전교회 부목사



박경환 목사



최영찬 목사



김동석 목사

· 위원장 강현 장로, 지도 장경철 목사, 서기 윤삼중 목사

분과명	분과장	지도	분과업무
기획	노광현		기본계획수립, 행정업무 조정, 예산심의, 조직인사
진행	강현	장경철	세부계획수립, 추진, 행사진행 총괄, 보고서 작성
예배	김재명	이종대	예배, 금요집회, 강사교섭, 특순자 교섭
찬양	김은호	현상민	찬양 및 특별순서 인도
양육	오정현	윤삼중	새신자교육, 양육관리, 통계유지, 포상
1교육	정하우	김창수	1교회학교 예수사랑 큰잔치 계획 및 진행 총괄
2교육	손동운	장경철	2교회학교 예수사랑 큰잔치 계획 및 진행 총괄
동원	강은원	성봉환	잔치당일 예배, 부흥회, 새벽기도회, 금요집회, 기타 교육일
봉사	마성락	이홍성	안내, 접대, 차량관리, 식사, 음료수, 유인물 관리
홍보	이종국	김찬곤	행사전 후 홍보 기록물 제작 및 보존
재정	김영개		예산편성 및 진행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7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3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7교구가 시작한다. 6교구는 3월 20일 오전 9시까지이다.

2. 공동의회

오늘 IV부예배 후 본당에서 안수집사 및 권사 투표를 실시한다. 교회는 오늘 IV부 예배 후 본당에

서 공동의회로 모여 제9대 안수집사 60명과 제37대 권사 70명을 뽑는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3월 5일 공동의회에서 후보 추천권을 당회에 일임함에 따라 3월 8일 임시당회에서는 안수집사 후보자 60명과 권사 후보자 70명을 결정하여 지난 주 <주간충현>을 통해 발표하였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발표된 후보자 중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여교역자·사모 부흥회

충현기도원에서는 지난 3월 13일(월) 저녁부터 16일(목) 저녁까지 전국 여교역자·사모 부흥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여교역자와 사모들은 3박 4일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믿음과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짜임새있는 강사들로 인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사진은 부흥회 기간 중 강의하고 있는 이견숙 사모.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8 ●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전쟁

(계 12:7-17)

오 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17절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겠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1.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마귀의 도전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했듯이 이 전쟁은 용과 미가엘 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싸우고, 그 반대편에는 사탄 마귀, 용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것은 영적, 우주적 전쟁인 동시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인을 떼셨기 때문에 용의 모든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반역자 용은 쫓겨날 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천사들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사24:21)라고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 하늘에서 온 천하를 미혹케 하던 이 붉은 용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원수의 정체와 그들의 운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는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한 두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8절에 나와있는 대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꾀다,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듯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룩하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여섯 가지 거룩한 성업(聖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승리의 비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비결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증거, 저와 여러분의 간증,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 마귀의 축출을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 위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마다 거기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2. 땅에서 벌어진 전쟁

13-17절을 살펴보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미가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리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용이 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종로에서 뱀똥고 한강에 가서 눈썹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그 격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는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날개아래 품어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손을 못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니다. 그리스도에게 패한 용은 교회를 향해서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특징이 여자처럼 약하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했고, 또 그리스도의 심부름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용의 활동무대가 하늘과 땅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 그의 활동무대가 지상으로 한정되자 이때부터는 남자를 낳은, 즉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에 대해 발악하고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세 때 반입니다. 이것은 삼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 대 환난 중의 반 정도를 양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양육을 받으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는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날개아래 품어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손을 못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 광야는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의 제2의 전쟁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만능주의가 활개를 치고, 공산주의와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 현대의 과학만능주의, 이성만능주의 인간이 만든 여러 종교들이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고전 10:13).

여 여자, 즉 교회, 즉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두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지만 몸집이 제일 커서 왕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왕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날개의 힘 때문입니다. 그 독수리의 날

개의 힘은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보다 더 큰 연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연단받을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라고 했습니다. 뱀이 토해낸 물은 음수입니다. 더러운 영이 나오는 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타락한 종교, 더러운 종교의 가르침은 마치 탁수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뱀은 바로 그런 더러운 물을 토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16절에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세계 열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래라는 것은 백성들을 뜻합니다. 바로 그들 위에 선 자라고 했습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장세기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용이 여인의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세계 열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탄은 서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탄은 다수주의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세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수주의가 아니라 진리주의, 말씀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열국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11절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교사통신 / 대학부 ◆



꿈(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비전 2000운동>

노영한
(집사, 대학부 교사)

고 3 학생을 둔 부모는 피곤하다.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을 둔 부모는 더 피곤하다. 재수 삼수를 하고서도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자녀를 둔 부모는 더욱 피곤하다. 고3이나 재수 삼수생들도 피곤하고 피롭지만 저들이 자라서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그때에 가서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자식을 낳아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속삭이는 자식을 길러본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友)를 둔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장폐에게 매맞아 죽거나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학부에는 재수 삼수생들의 기도모임인 '풀무불'이라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재수를 경험한 교사 선배들과 함께 풀무불처럼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한데 뭉쳐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들은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다. 재수생 중에 대학부 풀무불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시련을 괴로움과 원망으로 보내는 학생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실 때 불러 쓰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 전의 젊은 남녀인데 우리는 주목한다. 대학생들은 사사기를 많이 읽는다. 젊은 정신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 사사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젊은이들이라 사나이의 이야기, 젊은이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드보라는 처녀이고(노 처녀가 아니다) 함께 참전한 발락 장군도 총각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요

아스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인 것으로 보아 20대 초반의 총각이라고 추측된다. 삼손은 교양도 지식도 부족한 총각이었다.

대학부에는 사회경험이나 인격적으로 교양도 지식도 부족한 청년들이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젊은이들을 불러 쓰신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패기, 거칠고 급한 성격, 철없음, 피끓는 정열, 심사숙고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용기, 스포츠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돈이 없어도 걱정 없는 삶, 이해타산에 빠지는 이기주의(탐심)를 경멸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우정,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 일을 하려는 꿈과 용기를 승화되기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 많은 일꾼이 나온다.

이들 젊은이들은 아버지들 세대가 섬기는 바알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린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기존세대의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허물고 찍어 버리는데 충현 대학부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데 때가 오면 북한선교를 위해서도 대학부의 훈련받은 젊은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그저 앞만보고 착하고 기존 가치관에 순응하며 남에게 피해도 도움도 주지 않는 혼자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는 삶으로 큰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젊은 날과 한창 때가 긴 것이 아니다(전도서 1:3-10, 12:1-5). 대학부 생활이 결코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노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지만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비전)을 바라보고 산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늙은이와

같다.

하나님은 개인, 교회, 민족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꿈을 주신다. 대학부는 꿈을 주는 곳이다. 21C(2000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었다.

이스라엘 사회는 형제들로 구성된 혈연 관계이다. 그들은 광야교회(사도행전 7장) 40년을 통해 광야에서 개인으로 생존은 불가능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 공동체 생활만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웠다.

광야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잘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이를 얻기 위해 젊은 시절을 보내는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학부가 성령비전 2000운동을 시작하고 3월 한달을(1년중 계속) 집중적으로 광야길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젊은이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재수 삼수 직장인 학교생활에 지친 형제들 아직 무엇이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지 모르는 형제들을 초청한다.

이들이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며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새 일을 함께하기 위해 대학부는 준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지닌 야성, 격양, 의견충돌, 감정노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간혹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대학부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틀에 박은 것같은 암전하고 착한 학생에서 개성이 뚜렷한 2000년대 세계화 시대를 이끌고갈 성령충만한 비전있는 젊은이들로 양육하는 일이 대학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 선교사님께 보내는 편지 ◆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차현정
(초등2부 23반)

이준교 선교사님! 대운 이집트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선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몸은 건강하신지요. 제 소개를 안했지요? 초등2부 23반 차현정이에요. 선교 더욱 열심히 하시고 힘도 많이 내세요.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집트에 있어도 하루도 기도 안하는 날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라면 보살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을 믿는 차현정 올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겨울성경학교를 마지면서 -

성경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박선우
(초등2부 18반)

나는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날일 때 나와 게임을 했다. 줄을 잡아 당기는 것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몇번 이겼다. 또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이겼고 겨울 성경학교 둘째날 배운 노래들은 작은 기억에 안 나지만 아주 신났고 성경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었다.

또 성경공부를 끝내고 먹은 간식이 정말 맛있었다. 또 천로관광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가다가 보니까 무서운게 사라지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성가대를 2번이나 안선 것이 아주 많이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나오겠다고 다짐했고 또 생각나는 것은 성경학교 첫번째 날 한 인형극. '짱구와 믿음'이 너무 재미있고 그 인형극이 끝난 뒤 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하고 외치고 다닌 선교사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던지 잘잘 웃음이 많이 났다.

나는 성경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지 몰랐었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성경학교를 잘 나오겠다고 꼭 -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 캠프 / 역삼동에서 ▶

‘일꾼’

윤성철

(장로, 제3교구장, 중등2부 부장)

교회가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는다. 직분 맡은 사람을 통상 청지기 또는 낮추어서 일꾼이라 부른다.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몇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으나 시비에 휘말려 광야로 도망가는 패배자의 신세로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 묻혀 살았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강력한 가나안의 국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함으로써 그 땅의 비옥함과 부귀가 자기 민족의 차지가 될 것을 믿었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 후계자가 되었다.

또 다른 인물은 요나, 그는 여호와와 맞섬이 임할 때 정반대의 길로 도망간 인물이다. 그로서는 니느웨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 하시니 내키지 않았다.

신약시대에도 부름받은 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대 로마제국의 시민임을 내세웠던 당대의 인텔리였으나 주님을 만난 후 꾀박 속에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된 인물이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부르심과 응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달랐다. 애족의 열성을 가졌던 모세는 자기의 위치가 이스라엘도 애급 편도 되지 못함을 알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강권하시는 여호와와 손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생하고 난 후에야 니느웨로 향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발길을 돌리켜 자신이 박해하던 주님을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의 나라 지상교회를 위한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부르심의 형태는 각가지였으나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교회의 직분은 생장직위와 다르며 선택되는 과정과 그 위치 자체가 성격을 달리한다. 세상의 직위는 서로 알고자하는 다름이 있고 명예와 부와 힘을 함께 얻기도 한다. 일꾼이 되기 싫어도, 감당키 어려운 형편에서도, 반대로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과 때와 뜻이 아니면 이를 수 없는 선택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때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희생물 요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르심의 방법과 일꾼들을 택하신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 건너편에서 혹은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필요하다.

“사람이 제백을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전국 일꾼은 사람이 뽑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하늘나라 일을 맡긴 천사와 같은 동역자이다.

토·막·소·식

◆ 탁아부에서는 늘어나는 탁아들의 숫자에 따라 탁아부에서 봉사할 임시교사를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아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아파를 찾는 아기들을 위해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

◆ 중등1부는 영어공부도 하고 영어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교육관 303호(성가대 연습실)에서 2시 30분부터 영어성경공부반으로 모인다.

◆ 중등2부는 4월 16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과별 두팀으로 나누어서 준비하며 찬송가 149~160장 중에서 한곡을 골라서 부른다.

◆ 중등3부는 오늘 12:30~14:00, 교육관 514호실에서 이홍성 목사 주관으로 학부모 초청기도회로 모인다.

◆ 대학부는 3월 18일~3월 25일까지 숭실대, 연세대, 한양대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 전도를 나간다. 각 대학별 팀과 이투스, 대학부 내의 각 선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전도된 영혼들과 함께 26일(주일) 갈릴리움에서 총전도집회로 모인다.

◆ 청년1부는 3월 28일 저녁 7:30~9:00까지 명동 제일백화점 근처 대한투자신탁 앞에서 총동원전도로 모인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수요일부 예배 후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를 교육관 2층 영아부실에서 갖고 있다.

◆ 새가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교육관 201호(새가정부실)에서 정광욱 목사(청

예수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주변 집중전도 마쳐

매일 400여명 참석,
300여명 결신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이에 대한 계획 중 하나로 3월 14~16일 실시한 교회 주변 1·2·3교구 집중전도는 큰 성과를 거두고 마쳤다. 온 여전도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5% 정도의 출석율을 보였고, 1·2·3교구의 전도회에 배치되어 강남구 일대에 축조전도를 실시하여 300여명 정도의 결신자를 얻었다. 이는 교회 주변인 만큼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은 편이다. 또한 전 여전도회가 동원되어 나간 전도이기에 서로 협조하고 가벼운 흥분 가운데 진행되어 교회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구역예배를 마치고 각 교구에서 축조전도를 나가는 일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생각밖의 효과를 거두는 전도를 보며 각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도운동에 앞장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이렇게 하여 전도된 사람들을 초청하는 진정한 잔치가 되었으면 한다.

년1부 지도)의 특강으로 모인다. 주제는 '누가 그리스도인 부부인가'.

◆ 소망부는 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지정곡 219, 257, 433장 중 한국만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3/21(화) 국가조찬 기도회
· 신성중 목사: 3/20(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3/21(화) 국가조찬 기도회 3/23(목) 중헌실업인회 조찬기도회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안수집사와 권사에 피택되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의 유류순방으로 인한 열매의 충만함을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소서.

부른다.

◆ 장년1부는 5월중 마태복음 5장 전장을 암송하기로 하고 기도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오늘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로 모인다. 자유곡 1곡.

◆ 장년3부는 3월 26일(주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곡은 507장.

◆ 임마누엘 찬양대는 5월 5일 등산단합대회를 갖고 5월 20일에는 작은음악회로 모인다.

실업인전도회 조찬기도회

3월 23일 오전 7시

실업인전도회 월례 조찬기도회가 3월 23일 오전 7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신성중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모인다.

회원들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기를 바란다. 식사 및 주차는 무료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94년 7월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하여 94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해 주시며 성탄카드와 정성어린 선물들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수리남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체류허가를 얻다

94년 7월 11일 신청하고 경찰서에서 인터뷰한 서류를 9월 30일에 발송한 것을 확인했는데도 사무실에서는 안왔다고만 대답하더니 12월 7일에는 서류는 도착했지만 허가서를 만드는데 2주일이 걸리니 21일에 오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다가 지난 1월 18일, 신청한지 6개월 7일 만에 2년짜리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96년 8월 20일까지) 기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실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위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과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주간씩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여(5시부터 6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방학 중인 학생들까지도 5시부터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신년축하예배

12월 25일부터 계속 기도회로 모이고 31일밤 11시 반부터 모여 대화를 나누고 1월 1일 0시를 기해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각 가정별로 특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 0시가 되면 수리남에 얼마 안되는 중국 사람들이 화약을 터뜨리는 일이 파라마리보 전역에서 진행될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수리남 사정이 날마다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방학은 했지만 학생들은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산발적인 데모를 벌이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궁앞까지 물려감으로써

니다. 새해에는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받았다고 하며 터뜨리는 화약값이 비싼 것은 \$4~50 정도 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위해 중국에서 매년 수 백만 불어치의 화약을 수입하여 몇 분만에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천주교회가 12월 18일 주일에 성대하게 현당예배를 드리면서 경찰과 보이스카웃을 동원해 길을 막아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시대에 있는 천주교회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므로 예배시간마다 대조적으로 차가 붐비고 사람들이 붐비므로 우리 교인중에 두 교회(?)에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 하군에게 감사

Richmond의 Daniel Ha군이 자신이 소속된 보이스카웃에서 침대커버를 가지고 만든 봉대류를 보내주셔서 인디언들을 위해 사역하는 길벗 형제에게 전달했습니다. 귀한 것을 만들어 보내주신 다니엘군과 보이스카웃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건축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유치원 건축

을 위해 저희 선교부가 한인교회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95년 1월 15일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의제는 한인교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땅 중 교회건물이 서지 않은 50m×30m의 땅을 저희 선교부에 사용권을 일임하는 것으로 모두가 기쁘게 찬성을 하여 500평이 조금 넘는 땅에 유치원과 강당겸 현지어 교회, 선교관 또는 관리인 숙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인교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한인교회'로 되고 우리 정관은 '한인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야 그 땅을 다시 분할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분할, 설계, 입자선정, 건축, 정부로부터의 학교허가, 교사선정 등의 많은 단계들이 있게 됩니다. 위해서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소식들

제가 가르치는 성경공부반을 평일 아침 9시부터 10시반까지로 시간을 변경했으며, 아내가 하는 중고등부 성경공부반은 금요일 오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순에 방학했던 약학이 1월 10일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수고하시는 마를레나와 수대시가 그대로 통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영이와 위영이와 막내 요한이는 학교에 적응해가면서 공부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내(이성우 선교사)가 지난 10월부터 목이 쉬기 시작하니 오랫동안 낫지않아 얼마전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았는데 목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였다고 목을 사용치 못하게 하여 현직인 주일학교도 사브리나에게 맡겼고 성경공부도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목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남 소식

수리남 사정이 날마다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날마다 암시세가 오르면서 암시세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올라 결국에는 11월 23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두로 뛰쳐나와 과격한 시위를 벌이면서 상점을 부수고 약탈까지 행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11월 24일부터 공립 중고등학교는 1월초까지 방학에 들어갔었습니다. 방학은 했지만 학생들은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산발적인 데모를 벌이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궁앞까지 물려감으로써 물가가 당분간 조금 내렸었지만 국가의 외화보유가 충분치 못하므로, 모든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인 정부로서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도 올해들어 큰 변동이 없어 유지되고 있어 조금은 다행이지만 안정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편함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아직도 저희 주소를 P.O.Box 681이나 3024로 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P.O.Box 8222로만 써주시고 주소록도 교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